

수훤(舒群) 초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

-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이웃(隣家)』을 중심으로

박정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조선인 제재 소설의 생성 배경
3. 수훤(舒群) 초기 소설과 만주사변
4. 타자화(他者化)된 조선인 인물 형상
 - 1) 항일·항전 공동 전선의 파트너십 대상
 - 2) 실향 신세를 공유하는 동정·연민의 대상
5. 나오며

국문초록

중국 현대 문학에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형성되었던 동북작가군 작가들은 조선인을 소설 제재로 한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좌익 성향을 가졌던 이 작가 집단 태동기의 중심 인물이 수훤(舒群)이었으며, 1936년 발표된 그의 초기 작품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와 『이웃(隣家)』에는 조선인이 서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 시기 만주지역에서는 일제에 맞선 중국인과 조선인의 항일·항전 공동 전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이 두 작품에서도 조선인의 인물 형상은 항일·항전 공동 전선의 파트너십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향을 잃고 대륙을 유랑하던 작가에게 타자화(他者化)된 조선인은 작품 속에서 실향 신세를 공유하는 동정·연민의 대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수훤이 자신의 작품에 조선인의 인물 형상을 적극적으로 등장시킨 목적은 조선인의

*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 연구생

치지를 거울로 삼아 자국인들로 하여금 항일·항전 의식과 국제적 연대의식을 각성시키려는 데 있었다.

키워드: 동북작가 수취, 항일·항전 문학, 국제적 연대, 타자화, 조선인 인물 형상

1. 들어가며

중국 현대 문학에서 1930~40년대는 이민족·이국인인 조선인이 소설 제재로 다수 나타나는 다소 독특한 경관을 이룬 시기이다. 여기에 앞장선 이들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형성되어 1945년 종전·해방에 이르기까지 항일·항전 문학에 종사했던 동북작가들이다.

이 작가 집단이 태동한 지역은 하얼빈(哈爾濱)이었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기에 선양(瀋陽)이나 창춘(長春) 등 여타 만주지역 도시에 비해 일제와 만주국의 억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매체를 통한 비판 역시 용이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滿洲省委員會)가 1931년 12월 선양을 떠나 근거지를 하얼빈으로 옮긴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이 시기 항일·항전 문예 활동을 주도했던 중심 인물이 수취(舒群)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뤼평(羅烽)·바이랑(白朗) 등의 작가들이 1930년대 초부터 하얼빈에서 발행되는 『국제협보(國際協報)』의 문예판인 『국제공원(國際公園)』 등을 통해 일제의 만주지역 침탈과 만주국의 통치를 맹렬히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다.¹⁾

1) 수취·샤오권(蕭軍)·샤오홍(蕭紅)·바이랑(白朗)·뤼평(羅烽) 등은 동북작가들 중에서도 일체감을 가지고 소집단을 이룬 일단의 작가군이다. 이 시기 수취와 뤼평, 그리고 진젠샤오(金劍嘯)는 공산당 지하당원 신분의 작가들이었다. 뤼평은 하얼빈 동구(東區) 구위원회의 선전위원, 진젠샤오는 하얼빈 다오리구(道里區) 구위원회의 선전위원장이었으며, 수취는 동북항일의용군(東北抗日義勇軍)에 참가하고 있었다. 다오리구 소재 견우방(牽牛坊)이라 불린 곳에서 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항일·항전 목적의 연극단체인 『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아청현(阿城縣) 출신의 만주족(滿族) 작가 수원은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태어난 탓에 유년 시절 학업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 공산당 지하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34년 테러를 피해 도피한 칭다오(靑島)에서 국민당에 체포되어 몇 달 간 옥고를 치른 후 1935년 상하이로 가서 중국좌익 작가연맹에 가입했고, 1936년에 옥중에서 집필했던 중편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를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이 작품과 함께 동명의 이 작품집²⁾에 실려 있는 그의 또다른 단편 『이웃(隣家)』에는 조선인의 인물 형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이 시기 여타 동북작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인이 서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1930 ~ 40년대는 중국인과 조선인이 연합해 항일·항전 투쟁을 전개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던 곳이 만주지역이었다. 국민당 정부의 ‘안내양외(攘外必先安內)’³⁾정책에 따라 만주 군벌이었던 장쉐량(張學良)이 군대를 이끌고 중국 관내(關內)지역으로 이동하자 만주지역의 중국인들은 반만항일(反滿抗日)의 기치를 내걸고 자위군(自衛軍)·호로군(護路軍)·구국군(救國軍)·유격대(遊擊隊) 등을 조직해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호응해 남만주지역의 조선혁명군 등이 이들과 연합 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국제적 연대는 차츰 강화되어 마침내 부대 편성마저 함께하는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과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 발전되기에 이른다.⁴⁾ 1933년 결성된

싱싱극단(星星劇團)을 조직하고 직접 공연도 했으며, 창춘과 하얼빈지역의 매체를 통해 항일·항전을 주제로 한 작품 투고와 함께 편집에 참여하기도 했다. 王作东, 「东北作家的文学抗战」, 『黑龙江档案』 2016年 第6期 总第219期, 2016. 105页 참조.

- 2) 『조국이 없는 아이』에는 동명의 이 단편을 비롯해 『사막의 불꽃(沙漠的火花)』, 『몽골의 밤(蒙古之夜)』,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자(已死人與未死的)』, 『사람 노릇(做人)』, 『독신남(獨身漢)』, 『샤오링(肖蓉)』, 『이웃(隣家)』, 『맹세(誓言)』 등 9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 3) 중국 내의 공산당을 일소한 후 일본의 침탈을 막겠다는 정책. 만주사변으로 지역 내에서는 항일·항전 운동이 일어나지만, 이 시기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蔣介石)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했으며, 만주지역에서의 일본군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 4) 한시준, 「일제침략에 대한 한중 공동항전의 역사적 경험과 과제」, 『사학지』 제52집, 2016. 6. 64 ~ 66쪽 참조.

동북인민혁명군과 이것이 1936년 재편성되어 나타난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대 초까지 만주 전 지역에서 일제와 만주국을 상대로 치열한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지역의 형세가 이러했기에 수천을 비롯한 동북작가 대부분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실지 회복에 대한 염원을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테마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좌익 성향을 가졌던 이들 작가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공동 전선을 강조했다. 이 국제적 연대에서 가장 손쉽게 가까이 자리할 수 있는 이민족·이국인은 나라를 잃고 만주지역으로 몰려들어 어느 틈에 그들의 이웃으로 자리한 조선인들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하얼빈에서 동북작가라는 작가 집단의 태동기를 이끈 작가 수천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조선인을 제재로 한 소설을 창작하게 된 경위 및 그의 작품에 이민족·이국인으로서 타자화(他者化)되어 나타난 조선인의 인물 형상과 그의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선인 제재 소설의 생성 배경

만주사변 이후 만주지역에 거주하던 중국인 중에서도 만주족(滿族)이 느낀 상실감과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은 한족(漢族)을 비롯한 여타 민족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강했다. 이 지역을 민족의 발원지로 한 만주족은 지역에 강한 본토 의식(本土意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작가 중 수천 외에도 리후이잉(李輝英)·단무홍량(端木蕻良) 등 만주족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다.

만주사변 이후 수천을 비롯한 일군의 작가들은 일제에 짓밟혀 고통받는 고향 만주지역의 실상을 대륙 전역에 알리고, 자신들의 저항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차례로 그들의 고향인 만주지역을 등지고 떠나게 된다.⁵⁾ 대륙을 유랑하

5) 기록으로 살펴보면 연배에서 다소 앞선 리후이잉이 1927년 가장 먼저 고향을 떠났고,

는 동안 이들에게 고향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동경이었으며, 대륙을 유랑하던 중에서도 좌절을 딛고 설 수 있는 일종의 처방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들의 ‘고향’은 샤오쥘(蕭軍)에게서는 ‘향촌(鄉村)’, 샤오홍(蕭紅)에게서는 ‘후란허(呼蘭河)’, 완무홍량에게서는 ‘커얼신치 초원(科爾沁旗草原)’, 뤼빈지(駱賓基)에게서는 ‘홍치허(紅旗河)’ 등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다.⁶⁾ 이 외 계속 고향에 거주하면서 집필을 계속하기로 작정한 작가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작품은 1930년대를 건너뛰고 1940년대 들어 종전·해방이 임박했을 무렵에야 햇빛을 볼 수 있었다.

일제의 만주지역 침탈 의도가 구체화된 만주사변이 동북작가들의 본토의식을 자극했다면 뒤이은 만주국 수립과 국민당 정부의 이 시기 만주지역 무저항 정책은 이들의 상실감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 일제가 국호로 내세운 ‘만주국(滿洲國)’에서 국가 수립과 그 운용에 참여한 일부를 제외한 만주족 대부분은 그저 오족(五族)의 하나일 뿐이었다. 이 시기 민간에서 반일·반정부 성격의 ‘반일항만(反日抗滿)’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일제에 대한 자국 정부의 무저항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는 한반도에서 만주지역으로 조선인의 유입이 급증했던 시기였고,⁷⁾ 또한 만주국 수립 이래 만주지역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의 자생적인 항일·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직후 완무홍량이 베이징으로, 1932년 만주국이 출범한 이후 1934년에 샤오쥘과 샤오홍·류바이위(劉白羽)·뤄핑이, 그리고 1935년에 수친, 1936년에 뤼빈지, 1937년에 위헤이딩(于黑丁)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차례로 베이징·상하이·칭다오·옌안 등의 지역으로 떠났다.

6) “东北作家在流亡途中吟唱着一首对故土的恋歌. 萧军的‘乡村’, 萧红的‘呼兰河’, 端木蕻良的‘科尔沁旗草原’, 骆宾基的‘红旗河’中的美好承载着东北流亡作家心灵深处对故乡黑土地无法抹除的记忆和憧憬, 也是他们在流亡途中精神疗愈的药方.” 付兰梅, 「东北流亡作家群的家国认同解析」, 『长春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29卷 第6期, 2016. 11. 137页.

7) 20세기 들어 만주로의 조선인 이주는 1910년대와 1930년대에 급증했는데, 1910년대에 주로 옌벤(延邊)지역 위주로 이주가 이루어졌다면, 1930년대에는 옌벤지역 이외 다른 만주지역으로도 이주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191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급증해 만주지역의 조선인 인구는 1930년 6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되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940년에는 145만 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항전 무장 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 유격대 활동에 참여하던 조선인과 만주지역에 강한 본토의식을 가지며 조선인과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고자 한 만주족 동북작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후 이들은 차례로 만주지역을 이탈하게 되지만, 이 시기 동북작가들에게 타자화되어 인식된 조선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이윽고 그들의 소설 작품 제재로 투영되었다.

동북작가의 한 사람인 만주족 작가 된무홍량은 자신의 작품인 『대지의 바다(大地的海)』 후기를 통해 이 시기 조선인과의 국제적 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시기의 동북 항일운동사는 조선인과의 공동 제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것은 그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⁸⁾

수천 역시 그의 작품 『조국이 없는 아이』를 집필한 동기가 항일·항전의 공동 전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있었음을 밝힌 적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인 소년 골리(果里)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이 작품은 작가의 유년 시절 학교 생활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선인 소년) 골리를 떠올리며 피압박 민족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투지를 불태웠고, 그래서 일찍이 상하이에 있을 때 『조국이 없는 아이』를 출판했다.”⁹⁾

『조국이 없는 아이』뿐 아니라 1930년대 중반 발표된 그의 초기 작품은 모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19쪽.

8) “在那些年代里, 东北的抗日运动史中朝人民共同携起手来干的, 在这书中表现的不过是很小的一部分罢了.” 端木蕻良, 「新版後記」, 『大地的海』, 新文藝出版社, 1957. 266頁.

9) “……由于怀念果里 鼓舞被压迫民族的斗志 我在上海曾经写过一篇『没有祖国的孩子』” 董兴泉, 「论舒群的文学创作」, 『绥化师专学报(社会科学版)』1985年 第2期, 61頁.

두 생활 공간에서 그가 직접 겪었던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그는 “무릇 작가는 작품의 체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친숙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 작품의 체제가 작가를 무리하게 한다면, 그는 온전한 작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만큼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내지도 못할 것이다.”¹⁰⁾라며 이 시기 그의 작품관을 피력한 바 있다.

즉 누대로 살아온 고향땅이 일본으로 구체화된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되었고, 이러한 억압과 고통을 직접 체험한 좌익 성향의 작가들이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 참여 문학을 통해 일제에 저항했으며, 여기에 나라와 국권을 잃은 채 그들의 곁에서 이미 일제에 맞서 저항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그들의 작품 체제로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생성은 무산계급 혁명과 함께 국제주의를 지향했던 작가들과 이 시기 만주지역 디아스포라였던 조선인들의 만남에 따른 시대적 요청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 수현(舒群) 초기 소설과 만주사변

일제는 1931년의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만주지역을 침탈해 중국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1945년 종전·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와 긴 항일·항전에 돌입한다. 그리고 동북작가로 불리는 일군의 만주지역 출신 작가들은 만주사변 발발 무렵부터 그들의 붓끝으로 일제의 부당함과 만행을 고발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다수는 직접 전투 현장에 뛰어드는 등 저항 의지를 온몸으로 실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작가 집단으로서 동북작가군이 나타난 계기는 만주사변이었고, 그 선두에는 수현이 있었다. 소설 『만보산(萬寶山)』의 작가 리후이잉은 만주사변

10) “一个作者在决定一篇题材之前,应当想想是不是自己所熟悉的,如果一篇题材勉强了作者,很难产生一篇完好的作品,就是不失败,也绝不会深刻的。”于静·范庆超,「论舒群抗战时期的小说」,『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9卷 第1期, 2019. 1. 80页.

의 전주곡으로 불리기도 하는 ‘만보산 사건’¹¹⁾을 다룬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언급하며 이 시기 동북작가들의 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른바 동북작가군이 나타났다. 그들은 대부분 9·18(만주사변)로 인해 고향땅을 잃고 대륙 곳곳을 유랑하면서 적들에게 대항하고자 결심하고, 이를 제재로 삼아 적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작품화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작품은 『만보산(萬寶山)』으로, 이른바 ‘만보산 사건’은 실로 만주사변의 전주곡이었다.”¹²⁾

이처럼 만주사변은 수천을 작가의 길로 인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자신의 초기 작품 『조국이 없는 아이』와 『이웃』에서 만주사변을 서사의 구심점으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후 5년 되던 시점에 발표되었으며, 작품에서는 만주사변을 기준으로 이후의 경과 시점을 기산하는 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는 일제가 만주지역에서 소련의 세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국기 게양대 깃발의 교체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¹³⁾

11)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 만보산 지역에서 이통허(伊通河) 하천 관개 수로를 두고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지주 및 농민들이 충돌했던 사건.

12) “这时也出现了所谓东北作家群。大抵由于九一八使他们失去了故土，到处流亡，便坚定了反抗暴敌的决心。使他们以此为题材，写出来反抗暴敌入侵的作品。首先出现的是李辉英的万宝山，所谓万宝山事件，实是九一八事件的前奏曲。”李辉英 编著，《中国小说史》，香港东亚书局出版，1970. 297页.

13) 작품에 나타나는 학교의 모델은 제정 러시아 소속 시베리아철로(中東鐵路)에서 설립한 동철학교(東鐵學校)이다. 만주사변 후 일제는 이 학교를 포함해 만주지역에서 소련 세력을 축출하고자 했다. 작품에서는 이 학교가 폐쇄되는 마지막 장면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到‘九一八’事变后，日军将苏联在中国东北的势力(包括东铁学校)逐出当地。而这篇小说恰好勾勒出俄苏所属中东路下设立学校的结束场景。” 孙纪新，「中华全民抗战期间的东北籍满族作家 - 关于舒群·李辉英·马加·孙沫南等」，《重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2年 第5期，2012. 7. 10. 84页 참조.

“아직 나라가 있는 너희 중국인과는 달라.”

나는 그 말을 기억했다. 병영에 군호 소리가 울리고 조국의 깃발이 천천히 깃대 끝까지 올라갔다. 무의식 중에도 어떤 영광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깃대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조국의 깃발은 슬그머니 내려왔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깃발이 올라갔다. 9월 18일로부터 89일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¹⁴⁾

9월 18일은 만주사변이 발발한 날이다. 서사는 수천에게 타자화된 조선인 소년 골리를 통해 전개되지만, 수천의 이 서사를 탄생시킨 동인(動因)은 만주사변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의 전개는 그의 또 다른 단편 『이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이, 어이!”

누가 왔다. 권평(均平)이었다. 그는 또 취해 있었다. 너절한 걸음걸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노부인은 그를 알아보고서는 일어나서 가려고 했다. 내가 노부인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권평이 쓸 데 없이 나섰다.

“가난한 고려인놈이야 아무 데나 꺼지라지!”

노부인이 이를 듣고서는 곧바로 다시 앉더니 받은 만큼 보복을 했다. 뚫어질 듯 바라보더니 권평에게 쏘아부쳤다.

“어디로 꺼지라고?”

“저기로 꺼지라고!”

노부인이 집게손가락으로 바위를 가리키며 나지막히 말했다.

“지금 거기 앉을 사람은 바로 너야.”

그날은 공교롭게도 9·18사변이 터진 바로 다음날이었다.¹⁵⁾

14) “不像你们中国人还有国……”我记住了这句话，兵营的军号响着，望着祖国的旗慢慢地升到旗杆的顶点。无意中，自己觉得好象什么光荣似的。但是，不过几天，祖国的旗从旗杆的顶点匆忙的落下来；在起来的，是另样的旗子了，那是属于另一个国家的——正是九月十八日后的第八十九天。舒群，「沒有祖國的孩子」，《舒群文集》(1)，春風文藝出版社，1984. 13~14頁。

15) “喂喂!”有人来了，是均平；他又醉了，用零碎的步凑近我们的身边来。老太婆看是他，她姑起

『이웃』에서도 서사의 전개는 만주사변에서 기산한 날로 마무리된다. 두 작품 모두 메시지가 수렴되는 지점은 결국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 9월 18일, 바로 그날이다. 만주사변은 동북작가군을 탄생시켰고, 동북작가군 형성의 태동기를 이끌었던 수천은 그의 초기 소설을 통해 자신이 창작에 나선 계기가 만주사변이었음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4. 타자화된 조선인 인물 형상

『조국이 없는 아이』에는 골리¹⁶⁾의 고백을 통해 일제에 저항한 조선 지식인인 골리의 부친이 일제 총독부를 습격하다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묘사를 비롯해 급우들로부터 나약한 조선인으로 놀림 받자 안중근(安重根)의사를 내세우며 항변하는 소년의 형상, 부친의 원수를 갚고자 ‘나’의 칼을 빌려 일본 군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소년의 형상 등을 통해 이 시기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법한 슬픔과 아픔, 한(恨)이 잘 묘사되어 있다.

来, 想走开. 我对她说: “没关系, 你坐着吧.” 均平却说: “穷高丽叫她滚开就得啦!” 她听了, 立刻又坐下来, 报复了他. 并且牢牢望着他, 问他: “我滚到哪里?” 他又指着不远的那块大石说: “坐那里去!” 她向他伸出了食指低声说: “现在也该你去坐了.” 那天, 恰好是 ‘九·一八’ 事变的第二天. 舒群, 『舒群文集』(1), 122页.

- 16) 수천은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 ‘조선인’은 ‘고려인’으로 지칭된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름 ‘골리’는 ‘고려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하얼빈은 러시아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지역으로 러시아식 이름이 많이 통용되었고, 작가도 그의 작품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머무른 기간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는 1858년부터 일찍이 만주지역에 진출해 1900년 남만주의 뤼순(旅順)에 도감부(都監府)를 설치했는데, 1905년 러일전쟁 패배로 인해 남만주에서 철수하고 헤이룽장성으로 물러났다가 1931년 만주사변에 이르러서야 만주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즉 만주지역 내에서도 랴오닝성(遼寧省) 점거 기간에 비해 헤이룽장성 점거기간이 훨씬 긴 70년으로, 이 지역에서는 1949년 이전까지 러시아식 이름을 가진 현지인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김시준,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투영된 韓國人 像」,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06쪽 참조.

이 작품은 수친이 동북작가가 대동했던 하얼빈을 떠나 칭다오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체포되어 옥중 집필이라는 과정을 거친 끝에 발표되었다. 하얼빈 시절의 문예 활동 경력이 농축·응집된 후 이것이 그의 문학적 재능으로 다듬어져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웃』에는 나라를 잃고 이국땅으로 흘러들어와 구차한 삶을 이어가는 가련한 신세의 모녀 형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수친의 생활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⁷⁾ 노부인은 아들 셋을 독립운동의 제단에 바친 후 세든 집에서 딸의 몸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으나 현실을 타개할 마땅한 다른 방도가 없다.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 골리로 나타나는, 또 『이웃』에서 모녀로 나타나는 조선인의 인물 형상은 항일·항전 공동 전선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작품 속의 ‘나’와는 서로 실형 신세를 공유하는 동정·연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1) 항일·항전 공동 전선의 파트너십 대상

이 시기 수친과 같은 항일·항전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작가 대부분은 중국 좌익작가연맹(이하 좌련)과 같은 조직 혹은 좌익 계열의 잡지 발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좌익 문학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에는 계급 의식과 국제주의가 빠짐없이 나타난다. 또한 국제주의 외에 이들의 작품에서는 장광츠(蔣光慈) 등 이 시기 대륙의 여느 좌익 작가들에 비해 자국의 민족주의가 집단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¹⁸⁾

17) 칭다오(靑島)에서 도피하던 시기 수친 부부와 뒤늦게 합류한 샤오쥘·샤오홍 부부는 한때 관상로(觀象路)지역에서 잠시 한 집에 기거하기도 했는데, 이 시기에 겪은 체험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수친의 『이웃(隣家)』과 샤오쥘의 『이웃(隣居)』이다. 魯海·臧森, 「蕭軍, 舒群在靑島」, 『新文學史料』, 1982. 2. 22. 187頁 참조.

18) “东北作家群的作品绝大多数都表达了希望早日收复故土, 重返家园的愿望, 他们以自己的亲身经历通过文学的形象反映了抗日战争之前和初期的重大问题. 这在当时的关内作家是无法做到

중국 문예계는 1930년대 초·중반까지 좌익의 국제주의와 우익의 민족주의가 대립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8년 중화문예계항적협회(中華文藝界抗敵協會)가 결성되며 문예계 전체가 민족주의 사조로 일원화되지만, 수첸을 비롯한 동북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이미 만주사변 무렵부터 이러한 기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전 세계 무산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혁명과 일본의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난 제국주의 타파 및 자국 위주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저항이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스펙트럼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1936년에 발표된 수첸의 이 두 작품에서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은 동시에 나타난다.

좌련 작가들은 국제적 연대의 동지로 조선인을 가장 우선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의도한 연대는 계급에 기반한 전 세계 노동자·농민의 대동 단결이었던 만큼 연대의 대상이 조선인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조국이 없는 아이』에는 이러한 작가 의식이 엿보인다. 다국적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에서 중국인 학생 ‘나’와 조선인 학생 골리, 그리고 소련인 학생 골리샤(果里沙)는 함께 화기에 애하게 어울린다. 작품에서 소련인 교사 스토바(蘇多瓦)는 다국적 학생들을 이끌어 주는 전형적인 국제주의자의 인물 형상으로 나타난다.¹⁹⁾

的.” 章紹嗣, 「试论‘东北作家群’」, 『武汉教育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2, 33页.

19) 작품 속의 스토바 선생은 수첸이 홍어학교(紅俄學校)에 재학 중일 때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소련인 여교사 즈빈스크레바(周云谢克列娃)가 모델이다. 수첸은 즈빈스크레바의 집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초상을 처음 접했으며, 그로부터 정치적·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수첸은 이 여교사가 그의 첫 정치 교사이자 그를 문학의 길로 이끈 장본인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这位苏联女教师名叫周云谢克列娃, 她就是『没有祖国的孩子』里女先生苏多瓦的原型. 舒群在女教师家里, 第一次看见了列宁和斯大林的像, 并在政治·思想·学习和生活上得到了女教师的极大关心和帮助. 她给舒群很好的政治·文学启蒙教育. 用舒群的话讲: “她不仅是我的文化教师, 第一个政治老师, 而且也是指引我走上文学道路的老师.” 董兴泉, 「论满族作家舒群的文学创作」, 『满族研究』, 1987. 12. 31. 57页.

또한 수첸은 그의 문학 세계 및 작가로서의 행로에서 앞선 시기의 작가 장광즈(蔣光慈)로부터 받았던 정치적·문학적 영향을 고백하며, 이때 홍어학교 재학 시 소련인 여교사 즈빈스크레바로부터 받았던 영향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舒群讲: “蔣光慈的书对我的影响是最大的. 不仅影响到我的思想, 而且也影响了我后来从事写作. 蔣光慈即使不是我的第一个政治老师, 政治老师有家庭, 有社会, 有周云谢克列娃, 然而, 他确实是我的第一个

골리가 기숙사로 옮겨왔다. 스토바 선생님이 준 담요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골리샤는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골리에게 반으로 나누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점에 이르러 그에게 칫솔이며, 치약이며, 수건이며, 손수건이며…… 등등을 사 주었고 비용은 모두 자기 앞으로 적어두었다.

그 이후로 골리, 골리샤와 나 세 사람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간혹 한 사람이 빠지기라도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은 허전하고 구색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²⁰⁾

이렇게 어울리던 급우들은 학교가 일본군의 병영으로 접수되며 폐쇄되자 각자 헤어져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다른 학생들은 각자의 조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중 단 한 명, 조선인 학생 골리는 돌아갈 조국이 없다. 소설 작품의 제목 그대로 그는 조국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때 소련인 교사 스토바가 오갈 데가 없어진 골리에게 들려주는 말에는 국제주의 정신을 고무·찬양하는 한편 자국 위주의 민족주의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매우 직선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장차 고려 땅에서 네 조국의 깃발을 꽂아야 해. 그것이 고려인²¹⁾의 책임이자 바로 너의 책임이란다!”²²⁾

文学老师, 是我没见过的第一个文学老师.” 刘福春, 『『黑人』- 舒群的一本轶诗集』, 『社会科学辑刊』, 1996. 1. 29. 134页.

20) “果里搬到宿舍来, 除去苏多瓦磨给他的毛毯之外, 再什么都没有. 果里沙把自己所有的东西分给他一半, 并且, 在贩卖部内给他买了牙刷, 牙膏, 袜子, 毛巾, 小手帕……费用全写在自己的消费簿上. 此后, 果里, 果里沙, 我们三个人成了不可离散的群, 有时候缺少一个人, 其余的便到不健全.” 舒群, 『没有祖国的孩子』, 『舒群文集』(1), 21页.

21) 이 시기 만주지역 중국인들은 조선인 이주자들을 ‘선인(鮮人), 선민(鮮民), 한교(韓僑), 고려인(高麗人), 조선인(朝鮮人)’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 중 동북작가들의 작품 속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호칭은 ‘고려인(高麗人)’이다.

22) “將來在高麗的國土上插起你祖國的旗, 那是高麗人的責任, 那是你的責任!” 舒群, 『没有祖国的孩子』, 舒群, 『舒群文集』(1), 23页.

콜리는 ‘나’의 배려로 중국인으로 위장해 배를 타고 ‘나’의 고향으로 함께 이동하려 하지만 도중의 검문에서 부정확한 중국어 발음 때문에 적발되고 만다. 그러나 콜리는 그토록 긴박한 상황에서도 비록 자신은 조선인이지만 ‘나’는 중국인이라고 항변하며 나만큼은 체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쓴다. 이 작품의 대미를 장식하는 “나는 고려인이다. (그러나) 저 아이는 (고려인이) 아니다”라는 대사에서도 조선인과의 연대를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짙게 배어 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해. 내 동생인 척하라고. 말은 내가 할 테니, 넌 잠자코 있기만 해.”

그런데 배에서 내릴 때 경찰은 굳이 콜리에게 물었다.

“넌 왜 말이 없는 거냐? 병어리냐?”

결국 콜리는 고려인인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콜리가 말하던 마귀가 이곳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콜리는 또 다시 마귀에게 잡혀가게 되었다. 나 역시 옷깃이 누군가의 우악스런 손아귀에 잡힌 것을 본 콜리가 말했다.

“나는 고려인이다. 저 아이는 아니다.”²³⁾

『이웃』에 나타나는 모녀는 조선독립군 가족이다. 이것이 이들 모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여기에 억압과 저항이라는 대립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그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호의가 발동하게 된 것도 실인 즉 항일·항전 투쟁이라는 공동된 목표와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시기 여느 동북작가들의 작품에서처럼 유격대 무장 투쟁을 제재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지향점은 동일하다.

23) “你裝中國人，裝我的弟弟。我說話，你一點不要說！”然而，下船的時候，警察偏偏地問果裏：“你怎麼不說話，你啞巴嗎？”終於果裏被看出是高麗人。果裏所說的‘魔鬼’，這裏也有的；於是果裏又被‘魔鬼’抓了去。他看我也被一隻大手抓住衣領。他說：“我是高麗人，他不是的。”舒群，「沒有祖國的孩子」，『舒群文集』(1)，25頁。

“아들은요?”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짜증이 나서 손 가는 대로 물건 하나를 침대 위로 내던졌다.

그녀는 바로 고개를 들더니 내게 말했다.

“선생, 화 내지 말아요, 정말이지 내 아들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없어졌다고 말하세요?”

“그 아이들 모두 어떤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선으로 압송되어 갔어요.”

“죄를 저질렀나요?”

그녀의 눈이 이쪽에서 저쪽 창가를 쳐다보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나
를 향해 목을 길게 뻗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들은 독립군이랍니다.”

(중략)

나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하고픈 말도 꼭 참았다. 하나만 다시 물었다.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무기 징역!”

그녀는 말을 다 하고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머느리들은요?”

“아들들 옥바라지 해 주기 위해 모두 조선으로 돌아갔어요.”²⁴⁾

『이웃』에는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와 같은 국제주의·민족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묘사, 또 조선인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직접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와 모녀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유대감이 서사 전반에 깔려 있으며, 이 유대감의 근원은 피압박 민족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24) “儿子呢?” “没了。” “死了?” “不是!” 我感到她的谈话太奇怪, 太模糊; 我不耐烦了, 随手把一件东西摔在床上. 她立刻扬起头来对我说: “先生, 不要生气; 真的, 他们一个都没有死.”

“那你怎么说-没了?” “他们都被 ‘人家’ 押送朝鲜去了。” “犯罪了吗?” 她的眼睛, 从窗边望到另一窗边, 停留在门旁; 她向我伸长着脖颈, 放低了声音: “他们是独立党人!” …… 我为了听她好意的劝告, 我所要说的话, 又吞入了喉咙. 我只是又问了一声: “判了吗?” “无期!” 她说完了, 吐了一口深长的叹息. 我向她的身边移近了脚步: “媳妇呢?” “为照顾他们都回了朝鲜.” 舒群, 「邻家」, 舒群, 『舒群文集』(1), 113~114页.

이처럼 수첸에게 타자화되어 그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인은 혁명 문학을 지향한 좌익 작가 특유의 ‘항일·항전 공동 전선의 파트너십 대상’이었다.

2) 실향 신세를 공유하는 동정·연민의 대상

고향인 만주지역을 잃고 대륙을 유랑한 동북작가라는 특수한 신분은 수첸으로 하여금 여느 좌익 작가들에 비해 ‘타자(他者)’와 더욱 가까워지게 했고, 이에 따라 그는 동정과 연민에 기반한 자신만의 조선인 서사를 구성할 수 있었다. 『조국이 없는 아이』의 서사 전개 과정에는 골리로 나타나는 조선인 망명자와 함께 실제 망명자의 처지인 작가 자신의 형상도 스며들어 있다.

이 작품에 소련식 이름 ‘구바레프’로 나타나는 중국 소년 ‘나’는 그 나이 또래의 작가의 화신이다.²⁵⁾ 작가 수첸은 이 소년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성과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유년 시절 극도의 궁핍한 생활을 겪었던 그는 조선인 소년의 소개를 통해 소련인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²⁶⁾ 그에게 조선인은 단지 집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실향과 망명의 통환을 드러내는 매개체였다. 이것이 그의 작품에 타자화되어 나타난 조선인 인물 형상의 두 번째 의미이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난 조선인 이주자들은 이 시기 지역의 자주권을 잃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만주지역 중국인들에게 자신들도 그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생활 주변의 산 증인들이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동병상련의 감성 측면에서 조선인들은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 돌아갈 조국이 없는 골리는 스토바

25) “『没有祖国的孩子』还着力描写了以第一人称‘我’出现的另一个重要人物，他是中国孩子，俄文代名叫果瓦列夫。他就是作者当年的化身。”董兴泉，「感应着时代的脉搏 - 论舒群的创作起步」，《辽宁师范大学学报(社科版)》，1986年 第6期，1986. 46页。

26) “十五岁考入哈尔滨一中，但因家贫无力缴纳伙食费，被取消学籍。后经他熟识的一个朝鲜孩子介绍，得到一位苏联女教师的帮助，得以进入苏联子弟中学学习。邹午蓉，「舒群」，《当代作家评论》，1984，3. 1. 124页。

선생의 질문에 어쩔 줄 몰라하지만, 이 가련한 조선인 소년의 인물 형상은 고향을 떠난 이래 돌아가지 못하고 유랑 중인 작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사(投射)된 것이었다.

스토마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련 학생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듯이 대답하였다.

“조국으로!”

“구바레프(果瓦列夫), 넌?” 이번에는 나에게 물었다.

“조국으로!” 나도 그렇게 대답하였다.

“어떻게 가려는 거냐?”

“삼촌이 돌아와서 절 마중할 겁니다.”

스토마 선생님은 교탁에서 내려와 골리 가까이로 다가가 물었다.

“골리!”

“예?”

“넌?”

“...”

골리는 우물우물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벽에 붙어 있는 세계 지도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지도의 바다 가까운 한켠에는 그의 조국이 있었다. 그나마 여전히 다른 나라와는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국경이 구분되고 있었다.²⁷⁾

『이웃』에서도 피압박 민족으로서 조선인이 겪는 설움과 고통이 작가 수친의 시선을 통해 중국인 화자 ‘나’의 묘사로 나타난다. 그들과 실향의 처지를 공유하며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보내는 중국인 화자 ‘나’는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이다. 그리고 실향 신세 탈피를 미끼로 이들 모녀를 억압하는 주체는 일본어 통역으로 상징되는 일제이며, ‘나’는 이들 모녀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

27) 苏多瓦问每个苏联学生将要到什么地方去. 于是学生好象喊了一个口号: “回祖国去!” “果瓦列夫, 你?” 苏多瓦又问. “回祖国去!” 我说. “怎么回去?” “叔叔回来接我.” 苏多瓦从讲桌来, 走进果里的身旁问: “果里!” “什么?” “你呢?” “……” 果里咕噜两声, 说不出什么. 他只是带着, 在呆望墙上悬着一张世界地图. 在那地图上, 靠近海洋的一角, 有他的祖国, 仍涂着另一种颜色区分他祖国的边疆.” 舒群, 「没有祖国的孩子」, 舒群, 『舒群文集』(1), 22~23页.

나 별다른 방도를 찾을 길이 없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인, 결국 피압박 민족인 모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다.

“어찌 늘상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나요?”
 “선생, 내 생활을 보세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할 말을 잊었다. 노부인이 다시 말했다.
 “이제 방금 나간 저 남자 말이예요. 하룻밤 자고 밤잠까지 먹고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아이고! 게다가 나를 때리기까지 하고.”
 “그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간 손님입니까?”
 딸이 내 말을 듣더니 곧장 울음을 터뜨렸다. 노부인이 딸을 달래며 내게
 대답했다.
 “그렇다오.”
 “미리 선금을 받아두지 그랬어요?”
 “선생, 당신은 몰라요. 그는 일본어 통역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안 내요?”
 “그가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날 이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난생 처음 보는
 또다른 남자들만이 들락거렸다.²⁸⁾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의 골리와 『이웃』에서의 모녀는 만주지역 중국인들의 불안하기 그지없는 미래 모습이 조선인의 인물 형상으로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조선인들의 처지를 이 시기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그것과 동일시(同一視)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훗날 수춘은 『바다 저편(海的彼岸)』이라는 『이웃』과 매우 유사한 또하나의 조선인 제재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²⁹⁾ 황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자식과 가

28) 我問她：“怎麼，我常常看你哭呢？”“先生，我的先生，你看看我的生活，我能不哭嗎？”我沒話說。她卻說起：“你看看才走了的那個男人，在這住了一夜，吃了夜飯，沒有給留下一點錢，唉，還打了我。”“他是在這過夜的客人嗎？”姑娘聽了我的問話，立刻又哭出聲來。老太婆一面勸慰着她，一面回答了我：“是的，是的。”“那麼你怎不先留他的過錢呢？”“先生，你不知道，他是日文翻譯。”“那他不給錢了嗎？”“他說給我們送來。”以後，我總沒有看見他再來；所來的又是另外的一些陌生男人了。舒群，「鄰家」，舒群，『舒群文集』(1)，120~121頁。

29) 박재우, 「중국현대소설 속의 韓人形象과 그 事會文化的 狀況考」, 『中國學研究』 제

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되는 조선인 노부인의 처지 묘사에도 『이웃』에서와 같은 투사와 동일시는 똑같이 나타난다.

즉 이 시기 만주지역 중국인들은 국권을 상실한 조선인들의 처지와 지역의 자주권을 상실한 자신들의 그것을 별개의 다른 것으로 느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압박 민족끼리의 동병상련을 통한 일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대감은 두 작품 속에 타자화되어 나타난 인물 형상이 작품 서두의 부정적 형상에서 이후 긍정적 형상으로 전환되는 점에서도 확인된다.³⁰⁾

‘항일·항전 공동 전선의 파트너십 대상’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조선인의 인물 형상이라면 이러한 인물 형상이 나타나게 된 이면에 존재하는 또하나의 인물 형상이 ‘실향 신세를 공유하는 동정·연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원의 초기 두 작품에는 ‘항일·항전 공동 전선의 파트너십 대상’ 외에 ‘실향 신세를 공유하는 동정·연민의 대상’으로서의 조선인 인물 형상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5. 나오며

1930~40년대 중국에서 조선인과의 어울림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곳이 만주지역이었고, 또한 이 시기 중국 현대 문학에서 조선인과의 어울림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문인들이 동북작가들이었다. 그리고 동북문학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문학 선두에는 수원이 있었다.

중국좌익작가연맹이 이끌던 이 시기의 중국 문학은 국제주의에 입각한 인류 전체의 운명에 주목하면서도 작가들 자신이 처했던 환경인 중국 내 정세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이 시기의 중국 문

11집, 中國學研究會, 1996. 12. 228 ~ 229쪽 참조.

30) 우민(吳敏)은 『조국이 없는 아이』와 『이웃』에서 타자화된 인물 형상을 각각 ‘경시에서 존경으로(由輕視到尊敬)’ 및 ‘차별 대우에서 자성으로(由歧視到自省)’로 분석하고 있다. 우민(吳敏), 「民族主義的自我觀照 - 中國現代文學中的韓國敘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114 ~ 117쪽 참조.

학이 일제에 침탈·유린당한 조선인과 같은 약소 피압박 민족을 우선 주목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인 동시에 조선인 제재 소설이 다수 생성되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수권의 소설 작품에 나타난 조선인의 인물 형상을 살펴보면 거기에 담긴 의미를 새겨 보는 것은 결국 이 시기 이 지역의 중국인들이 조선인이라는 자신들의 이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접근이며, 그 주요 접근 방법은 작품 속에 타자화되어 나타난 조선인의 인물 형상이다.

특히 수권의 경우는 삶의 현실 공간에서 조선인과 직접 접촉한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 인물로 형상화한 작가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타 동북작가의 작품에 비해 관념적인 경향에서 탈피해 있으며, 또 그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 형상 역시 인위적 상상력이 아닌 실제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작가 태동기의 중심 인물 수권이 자신의 작품에 조선인의 인물 형상과 조선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등장시켰던 것은 좌익 작가로서 조선인을 그들과 동일한 피압박 민족으로 인식하는 한편 조선인을 일본의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난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파트너십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일·항전으로 나아가는 그의 창작 여정에서 이 시기 만주지역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았던 조선인만큼 적절한 작품 제재가 없었다.

즉 그는 이러한 인식 하에 조선인의 사례를 들어 자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자국민들로 하여금 항일·항전 의식과 국제적 연대 의식을 각성시키고자 했다. 이 시기 국권을 잃고 만주지역을 유랑하던 약소 민족 조선인들은 그들이 동지로 삼아 항일·항전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민족·이국인이었다. 그의 창작 여정에서 만주지역 조선인 이주자들은 국권 상실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되었으며, 그 제재는 자주권 상실 상황을 타파하고 중국인들의 각성을 촉진하는 문학적 도구로 적절히 활용되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端木蕪良, 『大地的海』, 新文藝出版社, 1957.
- 李輝英 編著, 『中國小說史』, 香港東亞書局出版, 1970.
- 舒群, 『舒群文集』(1), 春風文藝出版社, 1984.
- 王培元 編, 『東北作家群小說選』, 人民文學出版社, 1992.
-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재우, 「중국현대소설 속의 韓人形象과 그 社會文化的 狀況考」, 『中國學研究』 제11집, 中國學研究會, 1996. 12.
- 우민(吳敏), 「民族主義的自我觀照 - 中國現代文學中的韓國敘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 한시준, 「일제침략에 대한 한중 공동항전의 역사적 경험과 과제」, 『사학지』 제52집, 2016. 6.
- 董興泉, 「感應着時代的脈搏 - 論舒群的創作起步」, 『遼寧師範大學學報(社科版)』 1986年 第6期, 1986.
- , 「論滿族作家舒群的文學創作」, 『滿族研究』, 1987. 12. 31.
- , 「論舒群的文學創作」, 『綏化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85年 第2期, 1985. 7. 2.
- 付蘭梅, 「東北流亡作家群的家國認同解析」, 『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第6期, 2016. 11.
- 關紀新, 「中華全民抗戰期間的東北籍滿族作家 - 關於舒群·李輝英·馬加·關沫南等」,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 第5期, 2012. 7. 10.
- 劉福春, 「『黑人』 - 舒群的一本軼詩集」, 『社會科學輯刊』 1996. 1. 29.

魯海·臧森,「蕭軍,舒羣在青島」,『新文學史料』,1982. 2. 22.

王作東,「東北作家的文學抗戰」,『黑龍江檔案』2016年 第6期 總第219期,
2016.

於靜·範慶超,「論舒群抗戰時期的小說」,『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9卷 第1期, 2019. 1.

章紹嗣,「試論‘東北作家羣」」,『武漢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

鄒午蓉,「舒群」,『當代作家評論』, 1984, 3. 1.

Abstract

A Study on the Shapes of Koreans in Shu-Qun's early Novels - focused on "Child Without Fatherland" and "Neighborhood"

Park, Jeong Tai

Chinese Manchurian writers' most important literary theme during Manchukuo Period was 'Recovering Lost Land'. They emphasized international solidarity to achieve this. The easiest foreigners to form it were Koreans who lost their country and flocked to Manchuria to become their neighbors.

Shu-Qun was a leading figure in the early days of the formation of Dong-buk Literature, an anti-Japanese literary movement. He had direct contact with Koreans, and he also portrayed them as shapes in his work. Therefore, the shapes of Koreans are well represented in his representative works "Child Without a Fatherland" and "Neighborhood".

In this work, Shu-Qun described the crisis of losing national sovereignty, which may soon occur, as an example of Koreans. There was no better case than Koreans who had already lost their country as a literary tool to promote the awakening of the Chinese.

Key words : Dong-buk writer Shu-Qun, anti-Japanese literary movement, international solidarity, otherization, the shapes of Koreans

투 고 일 : 2021. 4. 10. / 심 사 일 : 2021. 4. 15. ~ 2021. 5. 15. / 게재확정일 : 2021. 5. 20.

